

2012년 성동구의회 비교시찰

○ 기 간 : 2012. 11. 7 ~ 11. 12

○ 방문국 : 일 본

#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성 동 구 의 회

# 연수 개요

## 연수목적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비교 시찰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의정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도시재생, 보육, 문화, 환경 분야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 경쟁력의 확보 및 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수기간

2012. 11. 7(수) ~ 11. 12(월)

## 연수지역

일본 동경(日本 東京)

## 연수자

김현주 의원 외 3명

## 연수 주요일정

- 2012. 11. 7(수) : 동경 도착, 도쿄도청 · 도쿄도의회 방문
- 2012. 11. 8(목) :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2 · 3정목 지구 방문
- 2012. 11. 9(금) : 세타가야구 어린이집 방문
- 2012. 11. 10(토) :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방문
- 2012. 11. 11(일) : 치요다구청 · 치요다구립도서관 방문
- 2012. 11. 12(월) : 김포 도착

## 일본 현황

수도 : 도쿄(東京, Tokyo)

면적 : 377,915km<sup>2</sup>(세계62위)

구성 : 4개의 주된 섬과 주위의 3,000개 ~ 4,000여 개의 작은 섬

4개 섬: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기후 :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인구 : 약 127,368,088명(세계10위)

GDP : 5조 9,800억\$(2012년 IMF 기준)

행정단위: 1도(都, 도쿄도), 1도(道, 홋카이도), 2부(府, 오사카부, 교토부), 43현(縣)

종교 :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

교육 :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 동경 현황

위치 : 일본 남동부 도쿄만(도청 소재지: 신주쿠구)

인구 : 1,318.9만명(총 인구의 약10%)

면적 : 2,188km<sup>2</sup>(총 면적의 0.6%)

행정구역 : 23특별구, 26市, 5町, 8村



도쿄도 행정구역 및 비교시찰 방문지역

## 제1일 도쿄도청사

### 도쿄에 도착하여

2012년 11월 7일 오전 8시, 우리 일행은 JAL 0950편에 몸을 싣고 인천을 출발한지 약 두 시간 반만에 도쿄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였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수도 도쿄는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가까운 일일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전철(NEX)을 이용하여 동경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으로 보이는 농촌과 도시의 풍경은 눈밭의 배치에서부터 단층 가옥과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까지 일본의 질서정연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 신주쿠역(新宿駅)

도쿄도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주쿠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전철노선과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는 역사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쿄의 행정, 상업,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신주쿠역은 JR 동일본, 오다큐 전철, 게이오 전철, 도영 지하철, 도쿄 메트로 등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이 364만명으로 세계 제1위의 이용객수를 자랑한다고 한다. 역사 내에는 쇼핑몰과 각종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어 역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였다. 신주쿠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쿄는 런던, 뉴욕과 같이 철도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으로서의 전철의 역할은 도심 곳곳을 거미줄처럼 이어줌으로써 동경을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으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10월, 분당선이 연장 개통 되면서 왕십리역은 4개의 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교통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왕십리역사가 이제는 강남북의 환승역 수준을 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쿼드러플 역세권에 걸맞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주쿠역처럼 타지역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역사 주변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도쿄도청사 방문

첫번째 일정으로 도쿄도청사를 방문했다. 도쿄도청사는 23특별구, 26시(市), 5정(町), 8촌(村)과 도쿄도의 도시, 정, 촌, 전체를 관할하는 도쿄도 정부의 본부로서 청사건물은 제1본청사, 제2본청사, 도의회의 세 개의 단지로 이루어져있으며 세 개 중에서 가장 높고 두드러진 것이 제1본청사로 높이가 243.4m에 달하는 건물의 위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관공서가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사례다. 1991년도에 준공되어 20여년이 지났지만 새 건물처럼 청사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또 한번 놀랐다.

도의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사무국을 둘러본 뒤, 우리 일행을 안내한 곳은 제1본청사 45층(202m)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였다. 도쿄도청 전망대는 도쿄와 도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곳으로, 1층에서 전망대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도착하자 대형 유리창 너머에 도청 주변 중심가의 고층빌딩과 함께 멀리 외곽지역에는 반듯하게 정비된 주택가가 한없이 펼쳐지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도심 성동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도쿄도청이 완공된 1991년도에는 250만명의 관광객이, 2005년도에는 155만명의 관광객이 이 전망대를 방문했다고 한다. 관공서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케이스로서 도쿄도청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구 공공기관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활용한다면 구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도쿄도청사 앞에서



도쿄도의회의회사당

## 제2일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2·3정목 지구

(世田谷区 太子堂 2・3丁目 地區)

이튿 날, 우리 일행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범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의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는 도쿄도 세타가야구를 방문하였다. 답사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겐자야 역에 도착하자 세타가야구청 마을만들기과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인 우메즈 마사노스케氏, 서울시 도시계획국 이정화 서기관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을만들기하우스로 이동하여 세타가야구 현황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타가야구는 도쿄 23개 특별구 중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58 km<sup>2</sup>이고 인구는 842,323명(2012.4.1현재)으로 도쿄도내 인구가 가장 많으며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택지가 약 60%를 차지하는 주거도시이다. 이중 타이시도 2·3정목 지구는 목조건물의 밀집과 노후화, 협소한 도로, 공지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며 1979년 세타가야구에서 타이시도를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중점지구'로 지정한 것을 시발점으로 1982년에는 2년에 걸친 협의를 거쳐 「타이시도 2·3정목 지구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주민제안을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주민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좁은길 확장, 주민휴식을 위한 소공원 만들기 등 주민주도의 수복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구청 측의 설명이 끝나자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 대표인 우메즈씨로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업 전 낙후된 마을의 모습부터 협의회가 마을 사람들과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변화시킨 현재의 모습까지 슬라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며 설명하는 그의 모습으로부터 마을만들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야말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변화발전시켜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만들기하우스에서



주민대표의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

마을만들기하우스에서 설명을 들은 뒤, 우메즈씨의 안내로 현장 곳곳을 둘러보았다. 사업시행 전 마을의 도로는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하였으나 용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투리 공간이면 어느 곳이나 주민이 쉴 수 있는 작은공원(포켓공원)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이 바로 주민과의 커뮤니티의 형성과 자연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하천을 복개한 자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실개천을 조성하였고 이 실개천 바닥에는 마을 어린이들이 그린 예쁜 타일이 수를 놓고 있었다.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는 이렇게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우메즈씨에게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주민의 재산권 이해관계와 동의 문제였다. 부지매입 및 주민동의를 어려워 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중간중간 마을만들기 사업예정부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공지가 눈에 띄었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 합의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듯 하였다.

또한 세타가야구의 재정악화로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이였다.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공원의 일부 포장재를 다른 재질로 보수한 흔적은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참여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 국가와 도(시)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3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메즈씨를 비롯하여 협의회 참여주민의 고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매월 협의회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참여는 앞으로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장시간을 할애하여 사업 전·후 사진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사업을 설명해준 우메즈씨와 세타가야구청 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켓 공원 현장 설명



마을만들기 전·후 모습 비교 설명

이번 방문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잘 정비된 도로와 공원의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다름아닌 마을만들기의 진행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동의에 있다 할 것이다. 주민 전원이 찬성 할때까지 반대하는 한명을 위해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세타가야구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며 주민의 동의와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진정한 주민참여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최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공의 관건은 세타가야구의 사례와 같이 진정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직접 참여하고 합의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3일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なごみ 어린이집 방문

(太子堂 なごみ 保育園)

다음날 세타가야구를 다시 찾았다. 타이시도에 있는 구립 太子堂 なごみ 保育園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조용한 주택가에 2층 높이로 세워진 なごみ 어린이집은 깔끔한 외관만큼이나 내부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실내 수영장 및 각종 체육시설과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놀라웠다. 또한 야외활동 후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원아들의 모습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의 질서 의식을 엿볼 수 있었고 어린이집을 통해 어려서부터 사회성을 키우는 일본의 보육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런 구립 어린이집이라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의 보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なごみ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다.

우리구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립 어린이집 수를 보다 많이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잠만 재우는 시설이 아닌 성장기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구 어린이집도 세타가야구 なごみ 어린이집의 사례처럼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太子堂 なごみ 保育園 전경



야외활동 후 이동 모습

## 제4일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방문

(深澤 環境共生住宅)

4일째, 우리 일행은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을 방문하였다. 이 주택단지는 올해 초 서울시에서 주택재정비 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집중 조명을 받았던 곳으로 1952년 39호의 목조 단층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도영(都營) 임대주택단지를 40년이 지난 1997년에 환경 친화형 생태주거 단지로 재개발하여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와 어울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단지이다.

환경공생주택단지에 들어서자 단지 안뜰에는 수목과 풀들이 우거져 있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꾸며놓은 인위적인 조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입지전에 물 환경, 바람길, 녹지, 생물들을 조사하여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다른 생물과 사람과 공생할 수 있도록 비오톱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건물 외 벽에는 덩쿨이 식재되어 있고 옥상에는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건물의 단열효과 및 온도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맞은편 옥상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 재미있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와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판넬, 단지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조명기구, 풍력발전, 빗물을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빗물저류탱크 등 단지 내의 모든 시설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단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단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한다. 총 5개의 건물 중 1호 건물인 실버동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걷기 쉽고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건물 내에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가 입주해 있어 그야말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공동시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강사의 지도에 따라 즐겁게 동작을 배우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건물이 연결되는 통로를 설치하고 곳곳에 화단을 만들어 놓아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였다.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단지가 지금은 유명한 친환경 주거단지의 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한때는 낡아빠진 단층 목조주택 39채가 40여년 동안 슬럼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낙후된 임대주택단지가 현재의 모습처럼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주민들이 교류하는 거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개발 과정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노인이 살기 편리한 주택, 장애인을 배려한 전용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단지에 17채의 노인주택과 3채의 장애인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에 불편이 없도록 문턱을 없애고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였다. 우리가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단지에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주민을 배려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진정한 주민 맞춤형 주택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의 주택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방식에 따른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 의존하였다. 사람과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단지가 바로 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단절되고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서 벗어나 주민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여 인간 중심의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임대주택과 복지기능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고안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주거 대책 마련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앞에서



단지내 비오톱, 태양열 시설

## 제5일 **치요다구청·치요다구립도서관 방문**

(千代田区役所 千代田区立図書館)

연수 5일째, 우리는 문화분야 비교시찰 대상으로 치요다구립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도쿄도 23개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황궁(皇宮)이 구 면적(11.64km<sup>2</sup>)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치요다구는 국회의사당, 최고재판소 및 정부부처가 밀집해 있는 행정의 중심지이자 '책의 거리' 진보초(神保町)가 있는 출판의 도시이다. 치요다구청이 2007년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치요다구립도서관도 구청 9, 10층에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먼저 정보검색 코너로 이동하였다. 웹을 이용해 장서를 검색하고 전자책서비스를 시연해 주었는데 치요다구립도서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2007년도에 일본 공공도서관으로는 최초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서적 대출서비스인 「치요다 Web도서관」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장서를 다운로드한 후 PC화면으로 열람하는 방식인 웹 도서관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탈피하여 24시간 언제라도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혁신을 가져왔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도 치요다구립도서관을 모델로 웹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도서관에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서 그런지 관계자 또한 한국의 정보화기술이 더 앞서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전자책을 이용해보니 마우스 조작만으로 책장을 넘겨가며 읽을 수 있고 음성 낭독 기능과 메모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요다구립도서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 전문서적 등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 내에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내 도중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자료검색을 하면서 업무연락이 필요한 직장인을 위해 전화통화가 허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치요다구의 인구는 약 5만명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가 약 80만명에 이르는 업무·기능중심의 도시로서 도서관 이용 인구가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노년층이나 학생, 주부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녁 7시가 지나면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도서관을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도서관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전시공간에는 치요다구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서적이나 사진작품, 고문서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받는 장소에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 전시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되는 곳이 바로 치요다구립도서관이었다.

일반 열람실(구민 서재)로 이동하자 서가대의 낮은 높이와 서가대 사이의 넓은 공간이 눈에 띄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서가대의 높이를 낮추었고 서가대 사이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서가대 배치 하나에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일본의 도서관, 많은 장서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치요다구청사에서



치요다구립도서관 서가대

도서관 곳곳의 모습을 담으려 했으나 서가대 외에는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0층에는 아동도서 코너와 수유실, 그리고 자녀와 엄마가 편안하게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해 9층에서 10층으로 1개층만 운영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방에는 구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도서관에서 조사·학습할 때에 자녀를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어린이 광장’이라는 탁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모와 아이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우리구의 경우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덕분에 성동구립도서관을 비롯해 총 5개의 구립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수와 장서의 확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도서관도 치요다구립도서관처럼 권역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특화된 도서관, 구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 읽는 장소에서 문화의 중심지로, 더 나아가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 제6일    간판정비 · 가로수 · 빗물받이 등

연수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도쿄 도심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그 밖에 일본의 질서의식과 선진적인 도시정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도쿄의 대표적인 변화가인 긴자 거리에는 간판의 숫자만 해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간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상점의 개성과 특색은 살리면서도 차분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리의 경우 그간 간



긴자 거리의 간판정비 사례

판 정비사업을 통해 간판이 비교적 잘 정비되고 있으나 간판의 형태와 색감, 글씨체 등이 너무 획일적인 모습으로 통일되어 있어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상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간판 디자인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의 수종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도쿄의 경우 수그루를 식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암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우리의 경우 해마다 은행나무 열매의 약취 및 처리문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수그루로 식재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수종 변경을 고려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쿄의 빗물받이는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빗물받이 아래에 거름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빗물받이로 흘러들어간 쓰레기를 쉽게 걸러줌으로써 관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였다.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편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구에도 향후 빗물받이 준설시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든다.

## 연수 후기

일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은 아마도 ‘가깝고도 먼나라’일 것이다. 한 두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민족적 과거사와 영토분쟁 등 정치적·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미묘한 양국관계 속에서도 국제현실은 냉엄하기만 하다. 실리중심에서 일본을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일본의 잘된 점과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성과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정과 의정에 잘 접목시킨다면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5박 6일의 연수 기간 동안 일본의 선진적인 질서의식과 도시 환경·사회복지·문화 분야 등 자치행정 전반에 걸쳐 많이 배우려 노력하였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비교시찰을 통해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일본이라는 거대 국가를 움직이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건은 화려한 건축물과 놀라운 경제규모의 이변에 자리잡고 있는 도쿄도의 주민중심의 행정, 우메즈 씨와 같은 주민자치의 숨은 일꾼 덕분이 아닐까. 이번 연수를 통해 배워온 모든 것들이 최대한 활용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